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 | | | |
|------|---------------------------|--------------|--|
| 발행일 | 동경 외종일부 | Publisher | Korean Dong'i Ho. |
| 발행소 |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 Address |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
| 사설 | 라. 김. 권 | President | Chang Kun Lee |
| 주필 | 김. 권 | Editor | Donald C.W. Kim |
| 전화 | 850-849 | Telephone | 850-849 |
| 발행요금 | 1723 | Subscription | \$10.00 per year |
| 발행일 | 올해 11월4일 금요일 | Issue No. | 1773 |
| | | Date | Dec. 12, 1969 Fri. |

워-소-에서 미.중공 비공식회담 미국 공식회담재개의 길을 기대

(워싱턴 12월13일 밤, 중동) 미국무성대변인 맥크로스키씨는 12일 "스토셀미대사와 라이앙 중국대리대사는 11일 워-소-에서 약한시간에 걸쳐서 회담하였다. 이것은 사상방으로부터 통역만이 참가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중공의 유일한 접촉의 장소인 워-소-의 미.중 회담은, 작년 1월8일의 제134회 회담 이래, 중단되어있으며, 1년 11개월만에 중공.미국대사급 회담이 실현된 셈이다.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대변인은 "상상방이 이것을 명백히 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일체 명백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담을 여태까지 하여온 일련의 워-소- 회담의 계속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양자는 공통의 관심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라고만 말하였다. 닉슨정권은 발족 이래 일관으로 미.중 접촉의 재개를 희망하는 자세를 취하여왔다. 이것으로부터 중국측이 대사급의 회담에 응한 기회를 잡아, 미.중 회담의 재개에 대해서 미측으로부터 세로로 제안이 잇섯던 것으로 보인다. 또 중공이 이 회담에 응한 것은 문혁혁명 뒤에 중국 외교가 정상화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측에서는 이 회담을 미.중 공식 접촉 재개의 길로 만들 수 있길 바라고 심중하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중공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전환기에 쓴 반전운동 시위에서 서거운동으로 전술 전환

(워싱턴 12월12일 밤, 에이피) 몇십만명의 군중을 동원하고, 제미국에 "평화를 지금"의 소리를 호소한 10월, 11월의 "정전지지 일" 뒤에, 주최자의 "비에트남.모라토리움 위원회"는 금후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12, 13일과 크리스마스.저녁의 "명평을 위한 철야의 기도"에서는, 저미한 지역 활동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항의 활동을 제회적으로 억제한 이유는, 하나는 "크리스마스에는 이길 수 없다" 라는 인식, 또 하나는 11월15일의 워싱턴 반결핵진에서의 시위 이상의 것을 희망하는 것은 어렵다는 실감에서이다. "모라토리움 위원회"의 중심인물의 하나인 데이빗.미크스나군 (24세)은 "지금 미국은 항의의 파도를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9월에 모라토리움 운동을 시작한 후, 전쟁은 다시 미국에 있어서의 최대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 미국은 비에트남 전쟁에 열광한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닉슨씨는 우리의 소리를 드루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후에는 의회에 더 압력을 가하여갈 작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2면에 계속)

(제 1 면)



(제 1면으로부터 계속)

모라토리움위원회는 미크스나군의 단 3명의 젊은 남자가 추진력을하고, 존.켄네스.갈부페이스 아.바.드고수등이 실행위원회의 역원이 되어있다. 70년대의 방침은 아직 확실치않은데, 미크스나 군등 4명이 모다 대륙경선거에서 막카시우보의 선거운동에 참가하였다는 경력으로보아도, 금주의 모라토리움행동은 가투시위로부터 선거에도 중점을 옮겨갈 공산이 강하다. 70년의 국희선거는 "평화의 정치"에향하는 시일이된다.

세계개정안을 상원이 가결

(워싱턴 12월 11일 밤, 에이피) 대규모세계개정법안은 11일, 상원본회의에서 69대 22로 가결되었다. 닉슨대통령은 상원의 개정법안은 하원안보다도 극구부담이 중대하기때문에, 거부권을 발동할뿐저 모른다는 경고를 이미 발하고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의해서 사회보장급부는 15%증가가되고, 개인소득세면제액은 종래의 600불로부터 800불로 인상된다.

세계개혁법안 양원합동회의에서 조정

(워싱턴 12월 12일 밤, 에이피) 세계개혁법안의 조정을위해, 12일 상하양원합동회의 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상원측에서 총재무위원장이아 7명, 하원측에서는 밀트세입위원장이아 7명이다.

하원의 개혁법안은 여름에 통과, 상원에서는 11일에 통과하였는데, 양법안의 내용에는 백가소의 상위점이 있기때문에, 합동회의에서 조정을 하려는것이다. 14명의 위원회는 대반수가 재정문제에서 보수파로, 전원 50세이상, 또 신입의원은 1명뿐이다. 회의위원회에서는 각위원회 독립한 투표권을 가지지않고, 양원의 각대표간에서 투표한 결과가 합의로서 위원장의 한표로 대표되는 법이다. 또 양원합동회의 회의 권고가 양원에 회부되는경우에는, 무수정으로 가결, 부결의 하나르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앞에두고 법안성립을 급히 서두리고있는 국회의 본위기에서는 아직 권고의 부결을 생각할수없다.

파리 화평회담서 북비에트남 수석대표 퇴장

(피리 12월 11일 밤, 에이피) 11일에 열린 파리 화평회담 본회의에서 북비에트남, 해방전선측은 "닉슨대통령은 파리회담을 격을 내리게하였다" 라고 공격하고, 스안.도이 북비에트남수석대표는 회담을 보이콧하였다. 대변인에의하면, 도이수석대표대리로서 출석한. 하.반.라우대표는 "보이콧은 닉슨대통령이 랏지전미수석대표의 우임을 지명하지안했기때문이다" 라고 반언하였다.

한국여객기 박탈

오-명 태우고 북조선에 강제착륙

(서울 12월 11일 밤, 공동)한국의 대한항공의 일본제 에이.에스 11여객기가 11일 오후영사 30분경, 승객 47명, 승무원 4명 합계 51명을 태우고 서울동방 160키로의 강릉시로부터 서울로 향하는 도중에 헝방분명이 되었다. 대한항공의 조종훈사장은 동일, 등기는 북조선의 원산에 강제착륙하였다고 정치적으로 발표하였다. 또 동사장은, 등기에탄 육군준장의 군복을 입은 남자 둘이 탈취범일것이라고 말하였다. 승객중에는 일본인인입고, 대한항공의 승객명보에의하면 미국인 키스박사가 포함되어있다. 이 에이.에스 11기는, 금년봄 대한항공이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3기의 비행기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에대해서 한국정부는 적시 긴급회의를열고, 그후 정부대변인은 정부가 북조선 등기의 승무원과 승객을 석방시키도록 국제적십자사에 전보로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 한국에서는 58년 2월 16일 한국항공의 사상발여객기가 부산으로부터 서울에 향하는 도중, 좌조선에 강제착륙당한 사건이있었다. 승객, 승무원 23명중 7명이 북에 망명하고, 26명이 동년 3월 6일에 판문점에서 석방, 기체는 몰수되어있다.

아폴로 13호 드월 12일에 발사

(케이프.켄네디 12월 11일 밤, 공동) 미항공우주국은 10일, 아폴로 13호를 내년 미동부표준시간으로 3월 12일 오후 3시 28분 (하와이시간 동일오후 8시 28분) 에 켄네디우주센터로부터 발사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아폴로 13호의 승무원은 제임스.라벨, 토.마스.맥킨리, 후렛.헤이즈의 3우주비행사들이다.

비코 12 약 30기를 비에트남 목적으로부터 철회

(워싱턴 12월 10일 밤, 에이피) 국방총성은 10일, 2개비행중대상당의 비52폭격기 약 30기를 내년 중간까지 비에트남의 전투로부터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철되는 9일 레아드미 국방장관이 상원국방예산소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언급한것이다. 철회되는 비52기의 새로운 배치는 아직 명배치안인데, 국방총성대변인은 "비52기의 배치변경은, 국내의 비58폭격기 80기 이상을 폐지할려는 닉슨정권의 계획과 관련되어있다" 라고 말하였다. 비58의 폐지에의한 질약폭격전력의 축소를 동남아세아로부터의 비52의 철수로 보충하려는 의향이다.

비52의 철회는 금년초에 발표된 국방총성의 예산사감계회중, 대형폭격기의 비행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원이 되는것으로, 에이부람스주남비에트남미원조군사령관은 최초 이철회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레아드미 국방장관은 전에 비52의 출동회수를 제 1단계에서 달 천 8백회, 제 2에 천 6백회, 제 3회로 천 4백회로 감소시키는것을 결정하고있었다. 국방총성측에의하면, 최근의 수주간의 출동회수는 천 6백회를 초과하고있다고한다. 2개중대의 철회에의해서 비에트남 폭격의 비52전력은 3개중대를 남기게된다. 국방총성에서는 만일 전함의 변화로 폭격이 심히 증가가 필요로되는 경우에는, 3개비행중대에의해 달 천 8백회이상의 출동이 가능하고, 충분히 대응할수있리라보고있디 비52기 1기가 하루 출동하면 5만불이 날르는 계산, 레아드미 국방장관이 출동사감계회를 발표하였을 때에는 예산문제와같이 적의 전투행위의 저하가 배경으로되어있었는데, 현재 남비에트남에의 북비에트남군의 침투율은 높아가고있으며, 매달 추정 2만명의 병력이 남아하고있다.

남비에트남 정부군 병력을 백九 만명으로 증강

(사이곤 12월 10일 밤, 에이피) 남비에트남정부는 10일, 남비에트남군병력은 과거 6개월간에 약 8만 8천명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총병력은 백九 만명으로, 특히 지방군, 민병, 경찰등의 국민군 병력의 증가가 눈에 띈다고있다. 정규군은 육군 37만 4천명, 해군 2만 8천명, 공군 3만 2천명, 해병대 1만 1천명이다. 남비에트남군의 증강은 금월말 발표되는 닉슨대통령의 제 3차철병계획회에서 하나의 요인으로된다고본다. 또 랏주병의율은 약 2%, 2만명으로 추정되고있다.

남비에트남의 선거. 현정권하에서 불가능

(워싱턴 12월 10일 밤, 에이피) 9일 공포된 11월 18일의 상원의고위원회의 의사록에서, 라자스 극장장은 "남비에트남에서 선거가 행하여지는경우, 현재의 추정권하에서는 행하여지지안될것이다" 라고 발언, 또 이의향을 이미 북비에트남에 전하고있는것이 명백히되었다. 라자스장관은 고아 상원의원의 "화평계획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선거가 거행되는경우, 현사이론정권이 관리하는것이 필요라야" 라는 질문에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의 의향이없다는것을 이미 전하고있다. 또 북비에트남에대해서도, 비에트남의 현정세에서의 그들의 입장으로보아 공정한 선거는 이망할수없다는것은 미국은 충분히 인식하고있다고 전해지고있다" 라고 증언하고있다.



화평교섭에 무관제로 크리스마스 경 제트차 철병 발표, 부대통령 표명

(워싱턴 12월9일발,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8일밤, 백악관에서 2개월반만에 전미. 레디오.레테 비존 중계에 의한 30분간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통령은 이 중에서 크리스마스 전후에 신규비에트남 철병을 할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라이촌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라고 보이는것은 확실히 학살 이었다. 어떤 사정이 있든간에 범명을 할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비에트남문제... 교섭상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상관치안코, 나는 비에트남전쟁의 종결을 볼수 있을것이라고 믿고있다. 미군을 남비에트남군과 교체시키코가는결과, 전쟁은 종결할것이다.

남비에트남군의 교체에 의한 병력사감은, 2, 3주간후에 행하여질것이다. 북비에트남군의 남 비에트남에의 침투는 최근 증가되고있는데, 철병계획을 변경해야한다는 정도로는 생각되지안는다.

1. 미라이촌 학살사건...우리가 비에트남에서 싸우고있는 목표의 하나는, 일반시민에대해서 잔학한 방침을 취하는 정체가 남비에트남인에 강제로 주어지는것을 막는것이다. 그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에대한 잔학한 행위를 묵살하거나, 또는 집행하거나하여서는 안된다.

이런종류의 행위에관한함, 나는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라고 믿고있다. 미군장병은 여태까지 남 비에트남의 사람들에대해서 관용과 예절을가지고 접해왔고, 이기록에 오점을 남기는것을 용서해서 는 안된다. 현재 군사재판과는 별개로 민간의 수사를 하는것이 조라고는 생각치안는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에서 적절하지안타고 생각되면, 민간위원회를 고려할수도있다.

1. 혁명회담...현재 교섭의 진전은 기대하고있지안라. 비에트남화계위가 진전됨에따라, 적이 교섭에 의한 해결을하는위에서 압력을 심히 증대시킬것으로보겠다.

1. 동맹국문제...미국은 라이군에 보수금을 지불하고있다. 또 한국군에도 준비하고있다. 이 건에대해서 나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있다. 라이군은 의용군으로서 비에트남에 출병하고 있다. 라이군의 비에트남에 출병할 의사가있다면, 미군이 라이군대신에 비에트남에서 싸우기 보다, 돈을주고 라이군이 싸우게하는것이 조라고 생각한다.

1. 세금... 감세법안에 서명하는것은 시운일이다. 그러나 지금 상원이 통과하려는 법안에 서명하면, 나는 미국민의 일부에대해서 감세를하는한편, 전국민에대해서 물가를 올리게하는 결과 를 가져올것이다. 나는 그러한 일은 하지안겠다. 나는 6월30일이후의 부가세의 계속을 권고할 작정이다.

해그뉴부대통령발언과 언론인과의 문제...일반적으로, 나는 언론기관은 여태까지 공정하였다고 생각한다. 부대통령은 공무의 하나를 안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대통령은 검열을 주장한것은 아니다. 편견에반대한것도 아니다. 부대통령은 나와 마찬가지로 의견이있어서 당연히 인정한것 이다. 그는 레테미국도 신문사가 실행하고있드시, 보도와 의견을 분리할 방침을 취하는것이 조라 고 말하고있다.

1. 국회...공국회는 예산법안의 면에서는 역사상 최저의 기록을 만들고있다. 언제까지나 이리 낮으면, 우리의 유가는 크리스마스이후가 될것이다. 그러나 예산법안이 성립되지안으면 특별국회 를 소집할 필요가있다.

신임 호항총영사 취임

신임하와이한국총영사관의 총영사로 임명된 김주남(남비에트남한국부대사 김종규씨는 지난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판.아메리칸항공기편으로 부인과 영사 1명, 영양 1명을 동반하고 호항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금년 42세의 청년 외교관은 전에 대한에서 한국일보사의 사장, 코리아.타임스(영어 신문)의 사장등을 역임한 언론계의 중진으로 하와이에서의 동시시의 활약이 주목되고있다.

